

## 정부 문화재 감사, 불교계 '예의 주시'

본사주지協, 긴급 회의  
9인 대책위원회 구성

"향후 상황 지켜볼 것"  
문화재 관리 개선 추진



전국교구본사주지협회의는 12월 18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감사원과 경찰의 문화재 실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경찰과 감사원이 진행되는 전국적인 문화재 보수 실태 감사에 대해 불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와 문화재 보수업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경찰과 감사원이 밝히고 있지만 몇몇 사찰은 국고 보조금과 관련한 내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회의(회장 둔관, 이하 본사주지협)는 12월 18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이날 회의에서 본사 주지 스님들은 "경찰, 감사원 등 전국적인 문화재 보수 실태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자 한다"며

"일선 사찰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의도에 대해 총무원과 함께 모든 교구본사는 강력히 공동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본사주지협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상황에 대응기로 했다. 대책위원회에는 본사주지협회장 둔관 스님(은혜사 주지), 부회장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과 총무원 총무원장 종훈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

님, 재무부장 보경 스님, 문화부장 헤일 스님 등 9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현실적인 문화재 보수 환경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주지 스님들은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켜오면서도 국고보조금을 구걸하듯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으며, 법 제도를 개정 방향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원 등 정부 기

관의 조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모든 문화재 사찰을 범죄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은 대응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민간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면서 "일선 사찰에 이를 인지시키고 대응하는 방안을 정리해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재 비리 문책 지시와 국회 의결로 이뤄지는 감사원 감사는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내년 1월 6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9개 광역지자체와 200여개 관련 사업 등이다.

경찰청 수사는 경찰관서에 문화재 관련 비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사적경범죄법, 무자격자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문화재 관리 및 유지 보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문화재 도굴, 장물 취득, 밀반출 행위 등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불교·기독교, 서로 존중합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성탄을 맞아 12월 18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사회부장 보화 스님,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조계사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와 과장 전성수 목사, 안동교회 황영태 목사 등이 참석해 종교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다양한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정혜숙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 "다라국 문학상 당선 포기하라"

불교계·지역 문인들 잇달아 문제 제기... 문학상 운영 당선자 관여 의혹도

역사 왜곡과 불교 폄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을 문학상 수상작으로 제정해 물의를 빚은 제1회 합천 다라국 문학상이 당선자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해)는 12월 1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11월부터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에 대한 참가자 일부의 의혹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5일 시상식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 구성되는 소설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역사 소설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작가 스스로 밝힌 주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심각한 추정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국문인협회 합천지부도 12월 16일 성명서를 내고 절차상 하자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장했다.

문협 합천지부는 성명서에서 "그간 지역의 문학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 종합하면 심사 및 모든 진행이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진 듯하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문협 합천지부에 따르면 다라국 문학상 대상을 받은 표성훈 작

가는 문학상 초기 기획부터 관여돼 있었으며, 문학상의 홍보, 접수, 심사의 모든 진행을 맡은 경남소설가협회의 초대회장이었음 뿐만 아니라 다라국 문학상의 운영위원이기도 했다.

합천 지부는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당선자 표성훈 씨는 수상을 포기해야 한다"며 "문학인으로

서 마지막 양심을 갖고 있다면 이번 문학상과 관련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보직이 변경됐고, 조사 중이라 말해 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 '한국 전통산사 7곳'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진관사·삼화사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불교 사찰과 문화재가 연이어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등 7개 전통사찰은 12월 17일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으로의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대상으로 등재를 위한 예비목록이다.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으로 등재해야 세계유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문화재청은 18일 "3일 외교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후 17일 등재를 확인했다"며 "한국의 전통산사 와 함께 '고령 지산동 대가야' 를 최종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사찰 건축 양식, 공간 배치 등에서 인도 유래 불교의 원형을 유지하고 중국적인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토착성을 보여주는 동아시아 불교 문화 교류의 증거임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산지에 입지해 내외부 공간

이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나라 불교의 사상, 의식, 생활, 문화 등을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술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잠정목록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잠정목록 등재를 통해 총 18건의 세계유산 잠정목록(문화유산 14건, 자연유산 4건)을 보유

하게 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는 12월 19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한 진관사와 삼화사 등의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결의했다.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연등회, 영산재에 이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계종은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정을 계기로 '수륙재'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972호 INDEX

시방세계  
새해 서원 담은 불교 달력

5

종합  
2013 불교계 종단 결산  
테고종 쇄신 위한 첫 산림 연다  
조계종 스마트 교육 '인기몰이'  
포교원 무진장 스님 100계 만발공양

2·3

강의실 중계  
실상사 선지식 범회- 오강남 교수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지장도량을 찾아서- 대구 소개사

8

### 대행 스님 법어 BBS 방영

BBS 라디오  
12월 28일(토)·29일(일)  
오후 3시~3시 55분

BBS TV  
12월 26일(목) 오후 7시

송년특집  
2013 불교계 10대 뉴스

송년 에세이  
맹난자 수필가 '니르바나의 노래'



# 삶은 고통이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르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할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http://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개승·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